

도밍고 지역아동센터

second half

year 2025

VOL.19

Facebook.com/domingochild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6-7
031-871-9819

친구가 있어 행복한 도밍고

강은영 미카엘라 수녀 o.p.

제 방의 이름은 **‘진실의 방’**입니다. 이 이름은 아이들이 직접 지어준 것이지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붙여준 이름인데 방 문앞에는 마동석님의 그림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저를 조금 어렵게 느끼기도 해요. 집에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아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곳 ‘진실의 방’에서 함께 앉아 이야기합니다. 민원을 해결하듯 차분히 마음을 풀어가는 공간이지요.

지금 5학년이 된 000이를 처음 만난 것은 1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특수반 선생님도 이 아이를 돌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교장선생님께서는 “정말 센터에 아이가 다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실 정도였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000이는 다른 센터에서도 자주 적응에 실패해 어머니께서 많은 마음의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000이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눈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았지요. 그 후 2년쯤 지나, 아버님께서 출소하시고 000이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며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저 역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000이와 수많은 시간을 눈치싸움과 갈등 속에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000이는 그 시절이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또래 속에서 머물기를 스스로 바랄 줄 아는 아이가 되었지요. 만약 이 아이가 이곳에서 적응하지 못했다면, 분노조절의 어려움을 가진 채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변화를 볼 때마다, 하느님의 은총과 이곳 공동체의 따뜻한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며,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처음 센터에 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인근의 부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용돈이 없어 사탕을 몰래 가져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이었지요. 아이와 그 자리에서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사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설명한 뒤, 저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그저 사탕이 먹고 싶었지만, 손에 쥔 돈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어린 마음’이었지요. 그때부터 우리는 아이에게 매주 2,000원의 작은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아이는 한결 편안해지고,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이 눈에 보일 만큼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를 지켜보는 저는 늘 행복한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정작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일은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기쁨 자체가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신 선물 같아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년 열리는 작은 음악회에서 앞서 말씀 드린 그 000이는 드럼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탬버린을 들고 흥겨움 가득한 모습으로 또래들과 멋진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모두가 한마디씩 했지요. “000이에게 탬버린을 맡기길 정말 잘했어요!” 모두의 마음이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연에는 드럼과 난타의 협연 무대도 있었는데, 드럼을 연주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손가락이 자유롭게 펴지지 않아, 한 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으로 직접 펴야 하는 손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실지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센터에 다녔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자연스럽게 바이올린을 배울 수 없었지요. 그런 아이가 올해 드럼을 만나 자신의 끼를 마음껏 표현하며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멋진 공연을 완주해냈습니다. 그 무대를 보기 위해 배달 일을 마치고 급히 달려오신 아버지는 아들의 연주가 끝나자 누구보다 뜨거운 환호를 보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공연이 끝난 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던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따뜻한 격려에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하던 아이의 표정은 지금도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령기는 또래와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제니퍼 S. 홀랜드의 책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가 전하는 메시지처럼, 누군가가 곁에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라고 말해주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큰 안정감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 센터가 “친구가 있어 행복한 도밍고”를 모토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경험을 통해 학령기 성장에 꼭 필요한 사회성과 정서적 회복력이 더욱 깊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경험은 그 어떤 교육보다도 깊은 위로와 성장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친구가 있어 행복한 도밍고”**라는 모토 아래, 아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고 성장하는 경험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덧붙혀 저희 센터는 전체 아동의 40% 이상이 다문화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2022년부터 다문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자녀 소통 프로그램과 가족치유 캠프를 올해로 4년째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는 2018년부터 ‘몸활동’을 기반으로 한 치료적 접근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의 소통 능력,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경청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7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을 선물받았습니다. 저에게 스승이 되어준 도밍고의 모든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서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감동의 서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게 해주시니,

그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도밍고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 많은 활동은 '도밍고지역아동센터'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YFM – 민화부채만들기,뮤지컬 관람

7월 19일 YFM의 초대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부채만들기 체험 및 뮤지컬 '할머니의 여름휴가' 관람

02

CJ도너스 –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7월~9월까지 진행한 CJ도너스캠프 ' 문화다양성' 나의 가족의 문화를 배워보는 프로그램 진행

03

초록우산 – 척추건강지키미

7월~9월까지 진행한 초록우산 '척추건강지키미'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진행

04

도밍고지역아동센터 – 여름캠프

8월 4~6일까지 진행한 여름캠프'센터스테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2박3일 캠프프로그램 진행

05

도밍고지역아동센터 – 나들이

매월 문화체험, 활동, 관람 등 센터에서 진행하는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06

GKL – 1박2일 공주여행

9월 25~26일까지 진행한 GKL'1박2일 공주여행' 공주시의 지역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 진행

07

의지연 – 어린이 체육대회

10월 18일 진행한 의지연 '어린이체육대회' 의정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다같이 함께한 체육대회 참가

08

도밍고지역아동센터 – 작은음악회

10월 31일 진행한 '도밍고작은음악회' 1년동안 배운 악기, 노래 등을 발표하는 프로그램 진행

09

도밍고지역아동센터 – 다문화가족캠프

8월 9~10일, 11월 7~8일 총 2번 진행한 특성화프로그램 '다문화캠프' 우리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을 위한 다문화가정 집단 프로그램 진행

10

도밍고지역아동센터 – 성탄파티

12월 24일 진행한 도밍고'성탄축제' 성탄을 맞아 준비한 우리들의 축제 프로그램 진행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6-7
031-871-9819

YFM 초청
민화그림 부채만들기 & 뮤지컬

날짜 : 7월 19일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2025년 7월 YFM(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의 초청으로 부채만들기 체험과 뮤지컬을 관람하러 다녀왔습니다. 여름테마에 맞게 아이들이 부채에 그림을 그려 나만의 부채를 만들 수 있었고 '할머니의 여름휴가'라는 뮤지컬을 보며 아이들의 눈과 귀가 신났던 하루였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6-7
031-871-9819

CJ도너스 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날짜 : 7월 ~ 9월 | 장소 : 도밍고지역아동센터









CJ도너스에서 지원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으로 도밍고 친구들과 함께 이웃나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웃나라의 문화, 음식, 옷차림 등 우리나라와 다른것을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토마토, 양파, 양배추, 다양한 소스가 들어간 나쵸 만들기 활동이 가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초록우산
척추건강지키미

날짜 : 7월 ~ 9월 | 장소 : 도밍고지역아동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한 척추건강지키미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체조와 함께 신체의 소근육, 대근육을 이용한 활동, 게임교구를 활용한 팀플레이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으로 협소한 장소에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6-7
031-871-9819

여름캠프
센터스테이

날짜 : 8월 4일 ~ 6일 | 장소 : 도밍고지역아동센터, 양주놀자숲, 한마음수련원









이번 여름방학은 센터에서 2박3일 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센터에서 잠도 자고 놀자숲, 수영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했으며 더운 여름, 시원한 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뜨거운 여름방학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6-7
031-871-9819

문화프로그램
나들이

날짜 : 7~12월 | 활동 : 연주회관람, 허브아일랜드, 자연사박물관, 딸기농장 등









다음은 도밍고 문화프로그램 월별 나들이입니다! 아이들이 센터프로그램에서 한달 중 가장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며,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음악회, 허브아일랜드 야간개장, 자연사박물관, 딸기따기체험 등 올 한해도 다양한 문화체험을 아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6-7
031-871-9819

GKL과 함께하는 꿈을 찾는 행복여행

1박2일 공주여행

날짜 : 9월 25일 ~ 26일 | 장소 : 공주시 일대









GKL에서 지원한 1박2일 공주여행, 초등 4~6학년 아이들이 '공주' 지역을 탐방하고 지역의 문화, 역사를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일 공주에 비가 와서 움직이기 힘들었겠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로 모든 일정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6-7
031-871-9819

지역연합활동 의지연
어린이 체육대회

날짜 : 10월 19일 | 장소 : 의정부종합운동장









10월 의정부에서 아이들을 위한 연합 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주셨으며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활동, 레크레이션, 경품추첨 등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6-7
031-871-9819

문화프로그램
도밍고작은음악회

날짜 : 10월 31일 | 장소 : 가능동주민센터 앞마당









올해도 어김없이 10월 마지막 날 아이들이 일년동안 배운 바이올린, 드럼 및 타악기, 율동, 합창을 보여주는 도밍고작은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가능동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진행했으며 지나가는 주민들도 아이들의 연주와 노래에 발길을 멈추고 감상한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특성화프로그램
다문화가족캠프

날짜 : 8월 9~10일, 11월 8~9일 | 장소 : 도미니코 수도회









올해는 하반기에 다문화가족캠프를 2번 진행했습니다. 8월엔 캄보디아 가정을 대상으로 3가정이 함께 했으며, 11월엔 참여하지 못한 1가정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님들한테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가족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였으며 아이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이였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6-7
031-871-9819

절기프로그램
성탄파티

날짜 : 12월 24일 | 장소 : 도밍고지역아동센터









12월 올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성탄파티를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아이들이 자신의 마니또를 정하여 마니또를 위한 선물을 직접 준비하여 서로에게 선물을 챙겨주는 활동과 성탄 맞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며 보냈습니다. 그외에도 노래를 부르며 놀고 저녁엔 마라탕을 먹으며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과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서프로그램
인형놀이활동

날짜 : 9월 ~ 12월 | 장소 : 도밍고지역아동센터









9월 새로 오신 가브리엘라 수녀님과 함께 인형을 통한 놀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이 놀이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자아와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진행했으며 10회기 분량의 진행을 통해 자신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적극적이며 명랑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개별, 집단 등의 다양한 활동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6-7
031-871-9819

2025년 총결산

2025년 한해살림을 아래와 같이 마쳤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 총결산

구분	관	항	목	합계
세입	보조금수입 281,980,840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161,852,000
			시도보조금	116,168,840
			시군구보조금	3,960,00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49,540,325
	전입금	전입금	전입금	2,500,000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4,303,031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25,612
세입 합계				348,349,808
세출	사무비	인건비	급여	149,979,380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034,702
			사회보험부담금	12,415,390
			기타후생경비	175,000
		업무추진비	회의비	391,300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6,761,390
			공공요금	5,337,274
			제세공과금	2,377,870
			차량비	350,500
			기타운영비	3,660,850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13,322,909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46,263,876
			급식비사업비	76,275,500
세출 합계				328,345,941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6-7
031-871-9819

2025년 금품, 물품후원 및 재능봉사

2025년 한해동안 불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아이들이 신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품, 물품 후원 명단

(재)천주교의정부사회복지회, Fr.고민수 루까, Fr.김경진 베드로, Fr.문형균 클라로, Fr.이정우 도미니코, Fr.이학민 안드레아, Fr.정진호 베드로, Fr.최대환 요한, 가능동 주민센터 동장님, 강문희 바오로, 강하준, 고(古)박영태 요셉, 고(古)홍계원스테파노, 구경회 로사, 권동진안드레아 , 금강공업전재범, 김민기 요셉피나, 김민자 베아트릭스, 김순희 , 김영빈글로리아, 김영철 위원, 김영혜데레사, 김인구안나, 김정산 , 김지영(베네딕도), 김지은보나, 꽃마리, 나문희 엘리사벳, 녹양동성당, 달보드레 빵, 대건까리타스, 도월순 위원, 마을과 아이들, 민준기 YFM위원, 박근순, 박분조카타리나, 박수영요셉, 박정순 세실리아(2구역장), 방경애, 샤브봄(카페케이트), 서유경 리디아,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님, 송경숙 카타리나, 송미경, 스시히로미 , 아이누리행복한푸드, 이재균내과 우정임 위원장, 웅진정수기 자매님, 유정임올리바, 의정부1동성당, 의정부시장 사모님, 의정부시청 아동돌봄과, 의정부주교좌성당, 의정부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경민효주아녜스, 이규남 마틸다, 이라미 마리아, 이영상 글라라, 이윤재율리안나, 이주성YFM, 이준호, 이한택요셉주교님, 인동Fn, 장대진 전선자 카타리나, 조미단 헬레나, ㈜에봇, 조종덕 막달레나 할머니, 주식회사아이누리새빛, 주식회사탄탄글로벌,, 채종호, 최도현 요안나, 최미숙 수산나, 최혜민아녜스, 팬시로비 전계진 이사, 한숙경, 한순남말찌나, 황선계 안젤라

재능기부 및 차량봉사

Free Talking 이영호, 강정이네 떡복이, 경기도입맞춤조합, 달보드레 빵집, 댕기머리 미용실, 박선영 피아노학원, 박운헌 바오로, 서재범 파스칼, 유수연 동반자, 은인미사단, 장현진 수학보습학원, 충효 태권도, 행복한 부동산 임하영 율리엣따, 호원고기사랑,황영매 수산나

국립중앙박물관회 YFM 회원 후원자 명단

GS건설 허윤홍, 금강공업 전재범, 대교홀딩스 강호철, 대선제분 박선정, 대성 김신한, 덴톤스 리 민준기, 동성케미컬 백진우, 동화약품 윤현경, 두성테크 양승화, 문선영, 삼화택시 이상재, 세아제강 이주성, 신대양제지 권택환, 아이에스 동서 권지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민병철, 유니드 이우일, 이용균 알스퀘어 이존우, 진주햄, 차의과학대학교 차태원, 탄탄글로벌파트너스 이부건, 한세엠케이 김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6-7
031-871-9819

나만의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

만든 그림책 작품입니다.

아동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여

총 12권의 책을 읽고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한 '동화책 속으로' 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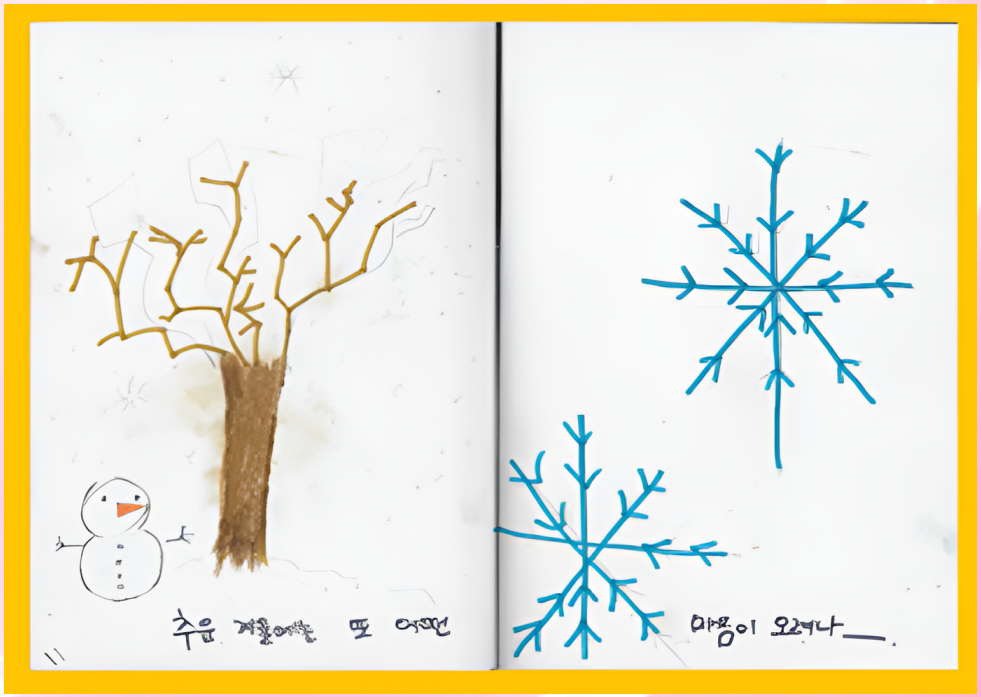
4학년 아이들이 도밍고에서

2025년


그래도 빛을 꿋꿋히
진다는 작은 꽃에서 희망을 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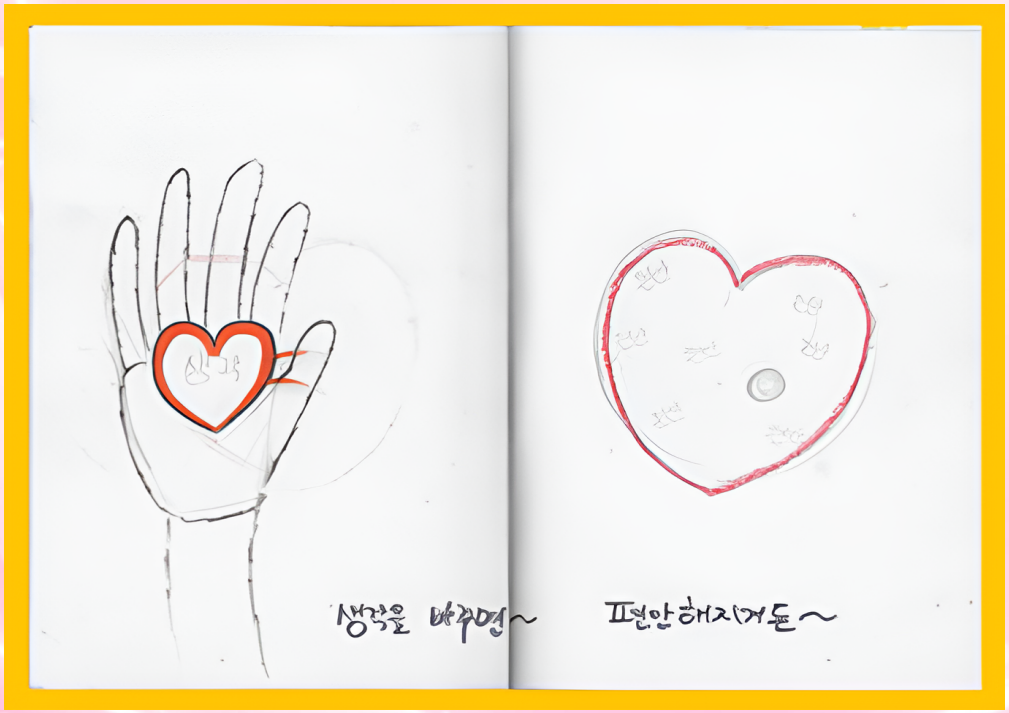

알록 달록 색이 변하는 잎사귀처럼 아픔도 변해 ___.


쓸쓸함.
외로운 한잎 ___.


추운 겨울에는 또 어떤
마음이 오려나 ___.


너의
아름은 어때?


걱정
걱정
걱정
걱정
걱정
걱정
걱정
걱정하지야 ___.
변할거야...


생각을 바꾸면~
편안해지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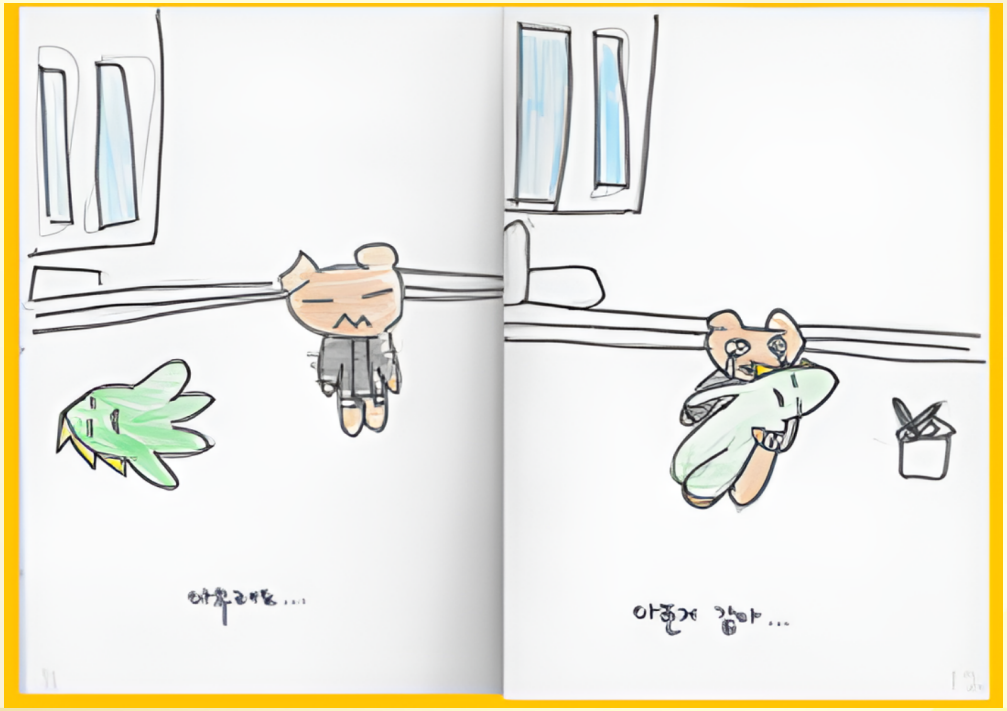

친구야! 나랑 같이 웃자




이지우 작가의
'이웃집'






아주래도...
아줌거 같아...


"내가 돌봐 줄게"
13
첨탕 놓쳐온
치료해 주겠어요.


매일 매일
15
정성껏 !!
16


"에옷"이된 혁거와 공룡
23
화목하고 일어난 공룡은
혁거만 아니라 다녀요.
24


이웃은 많을수록 좋지....
새로운 이웃 잭스 그리고 좋아했음.
27


잭스보다 좀 나은
앵그리도 피해보는거요.
"이제 우리도 나가자자!"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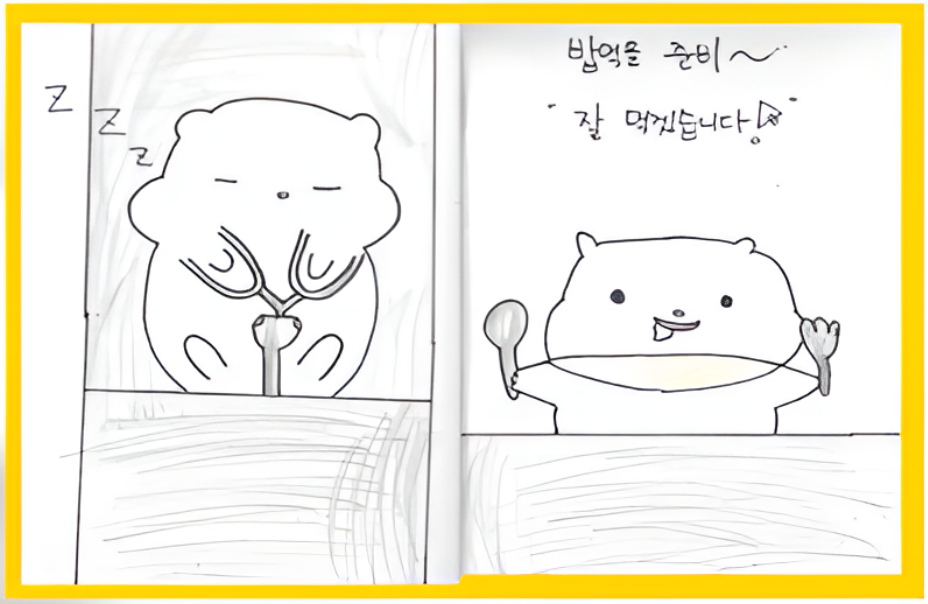

이 친구들은 뭐... 누구??
매일 매일 새로운 친구를 만들자! 이웃은 많은게 좋아.


이지우 작가의
'이웃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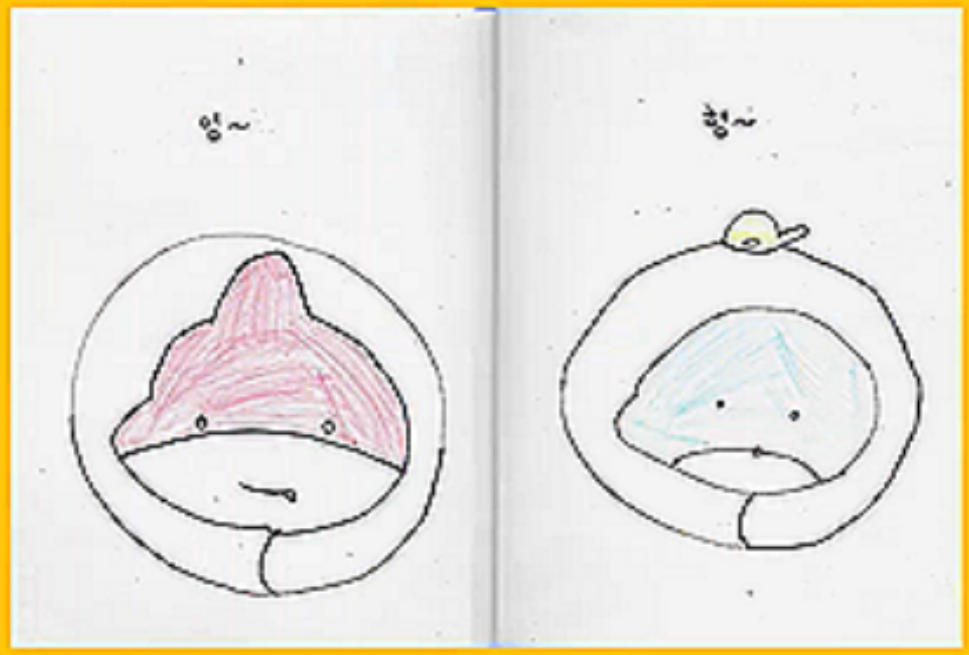
박채인 작가의 모찌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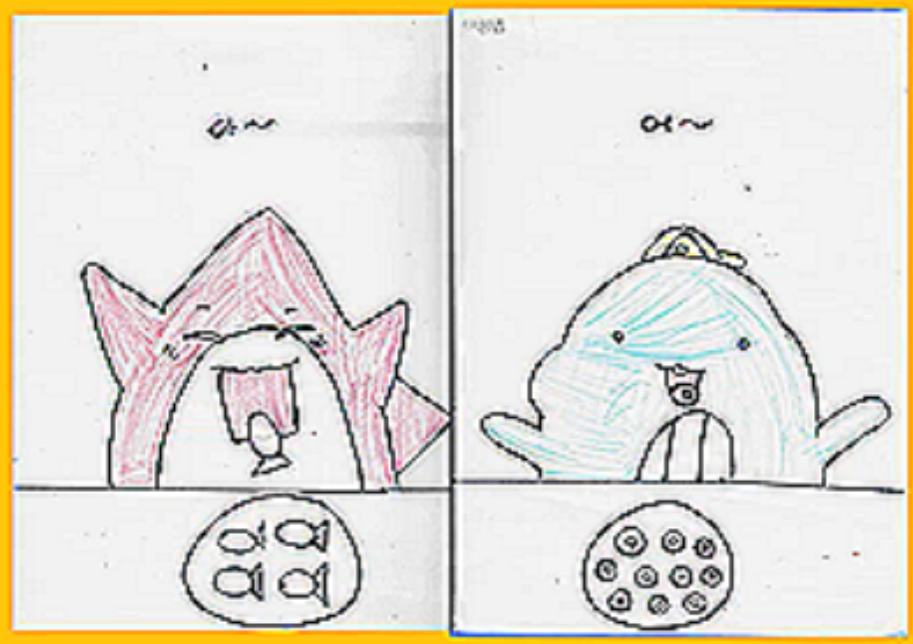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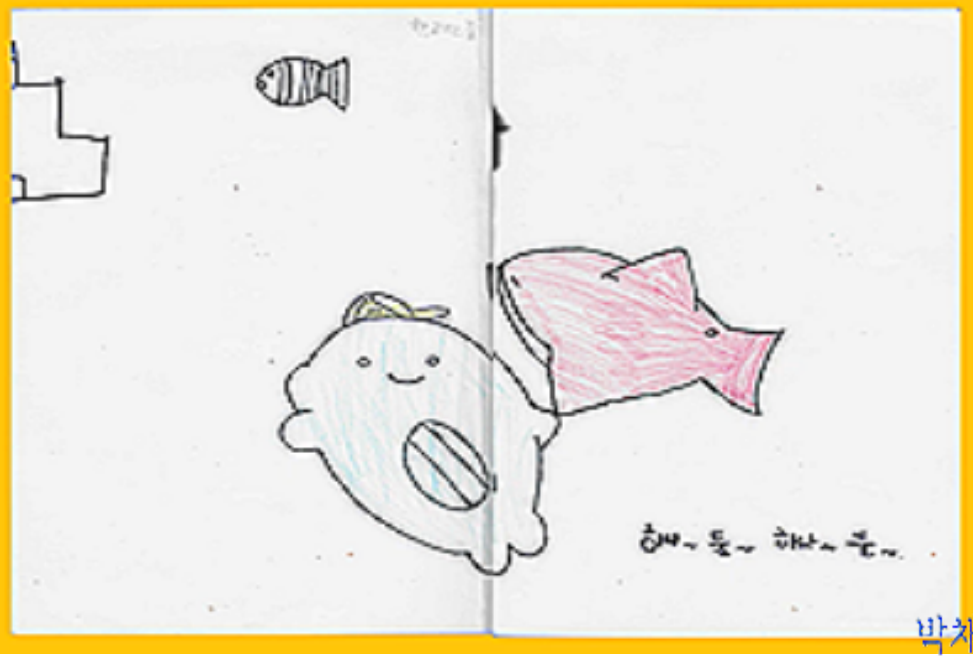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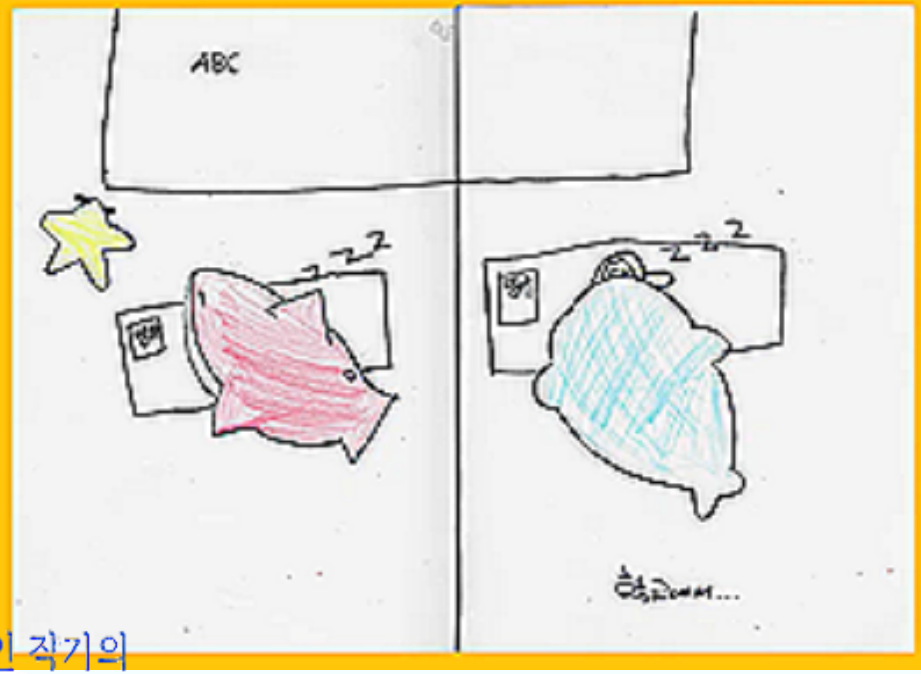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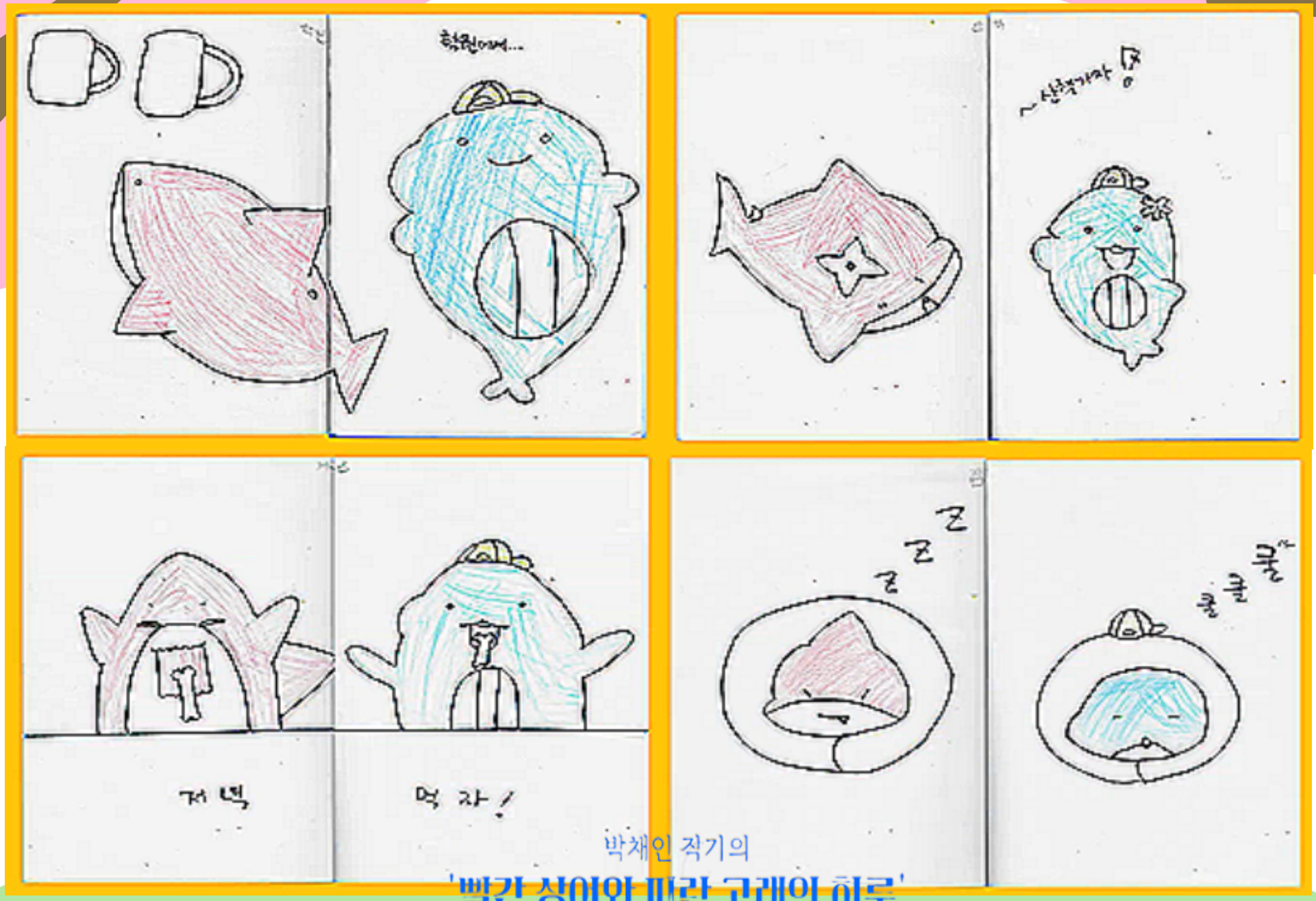






박채인 작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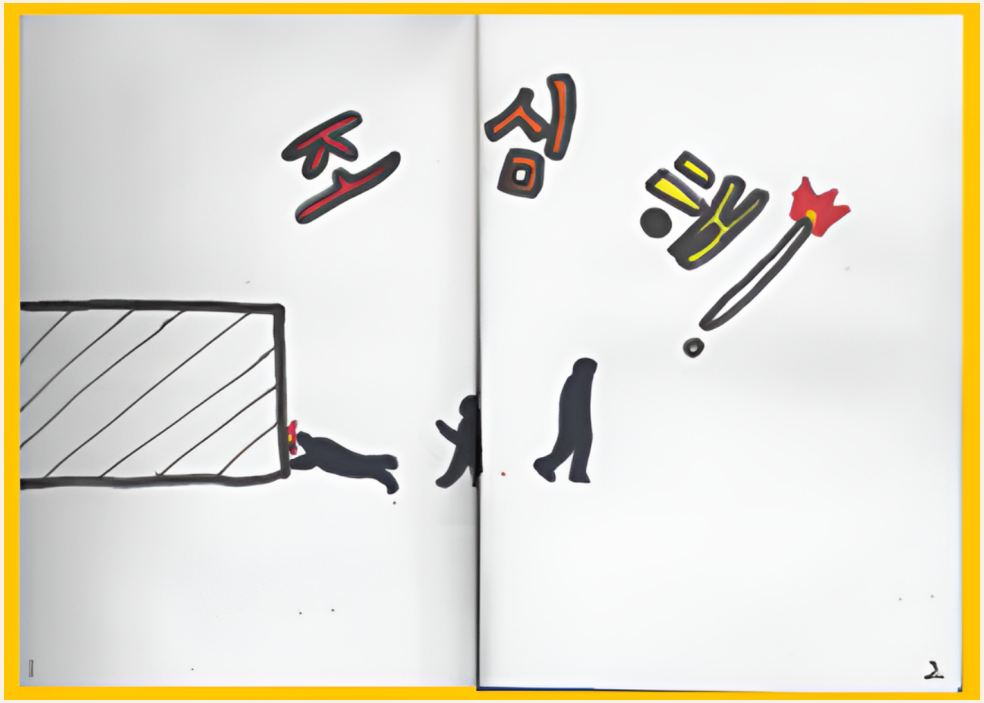
'빨간 상어와 파란 고래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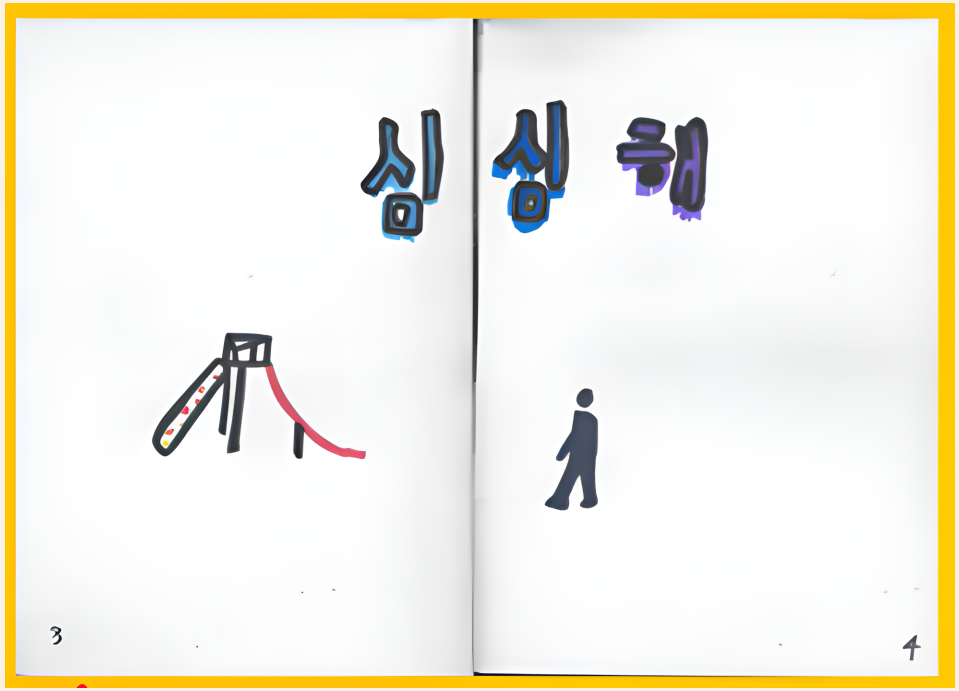


박채인 작가의

'빨간 상어와 파란 고래의 하루'


박동화 작가의
'감정해'


조심
1
2


심심해
3
4


사랑해
5
6

우울해



감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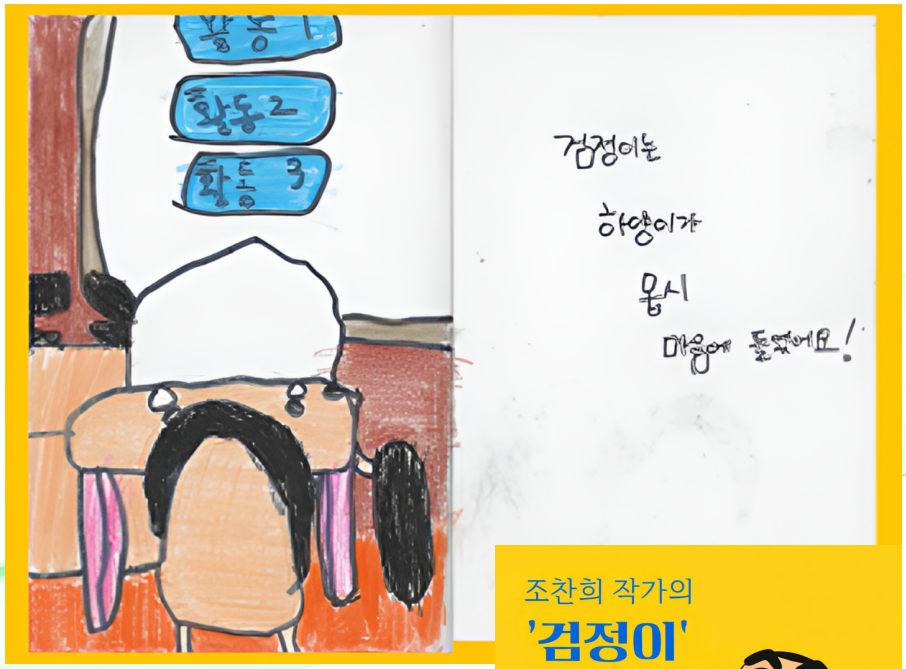
졸려해



상상해




전학생
하양이
파랑선생님이 하양이를 데리고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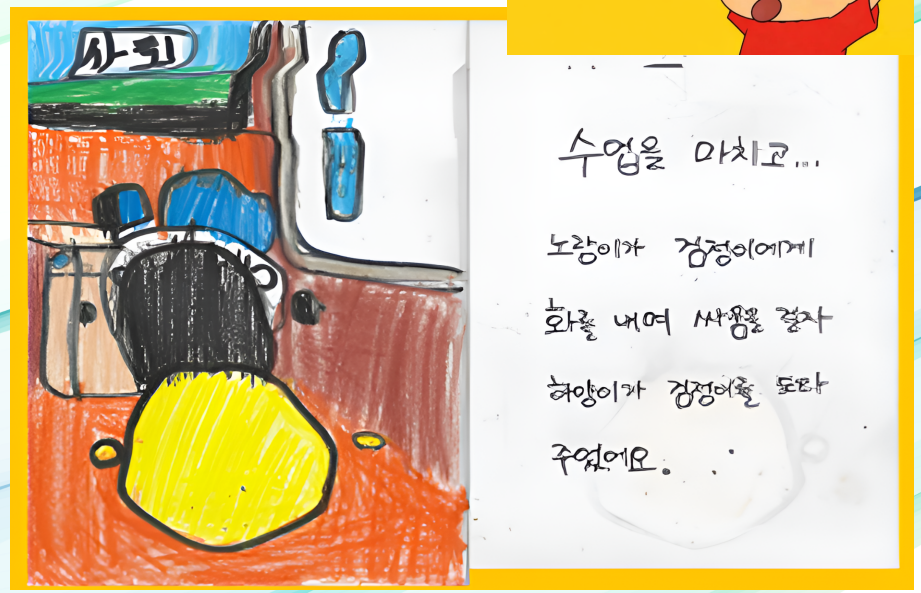

활동 1
활동 2
활동 3
검정이는
하양이가
몹시
마음에 들었어요!

조찬희 작가의

'검정이'




함수를 표현해보


사회
수업을 마치고...
노랑이가 검정이에게
화를 내며 싸움을 걸자
하양이가 검정이를 도와
주었어요.

조찬희 작가의

'검정이'



노랑이와 검정이는

함께

체스도 두고...





집을 갈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언제나 함께 였어요.

그러면 어느날~

하양이가 다시

전학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검정이는 이제

학교에 가고 싶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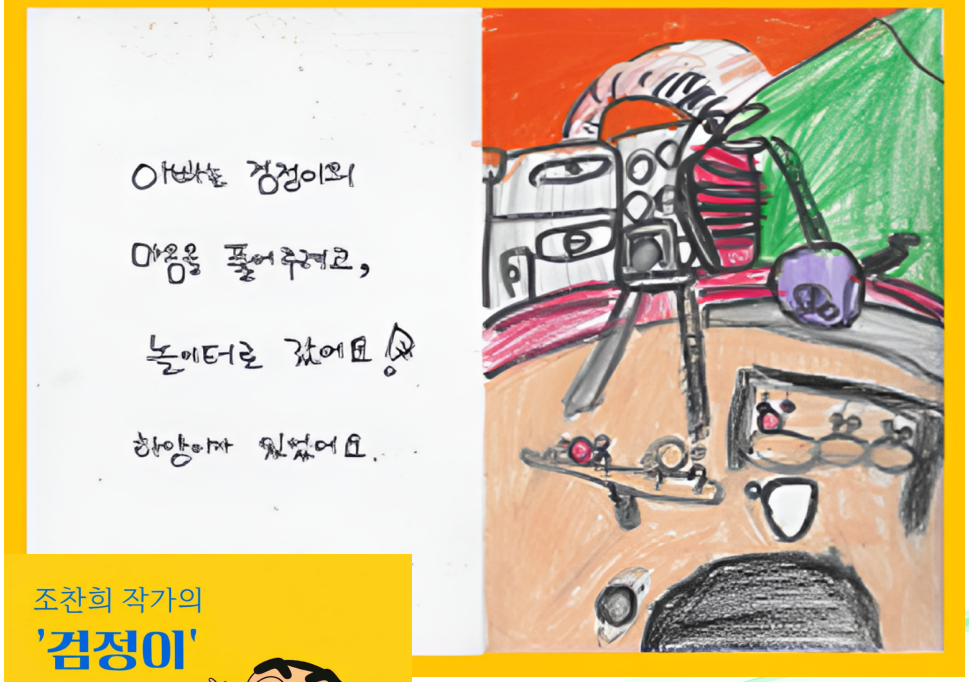
않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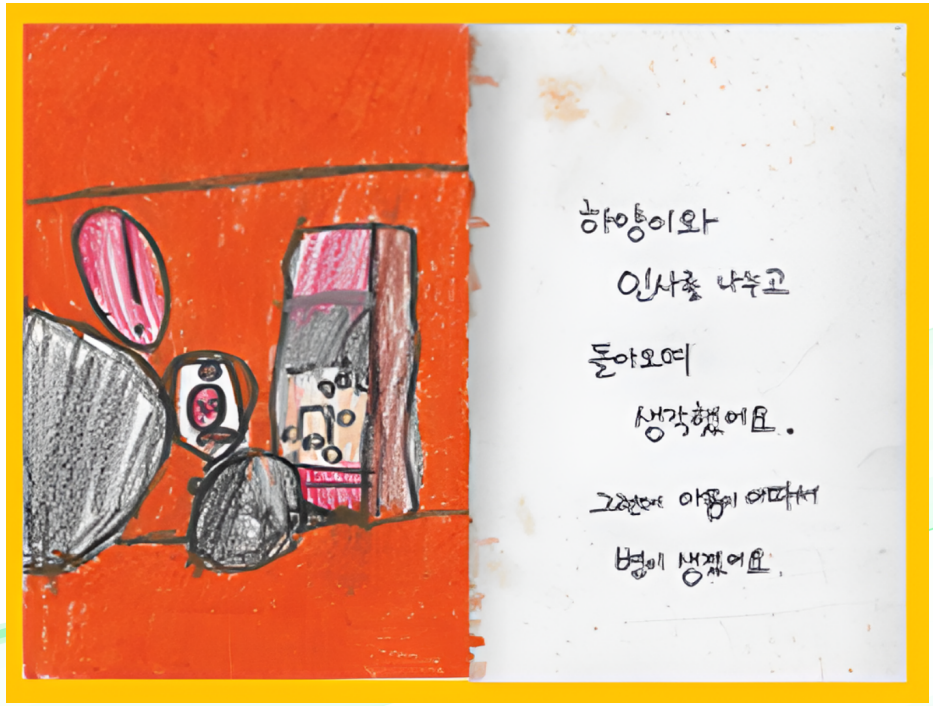
아빠에게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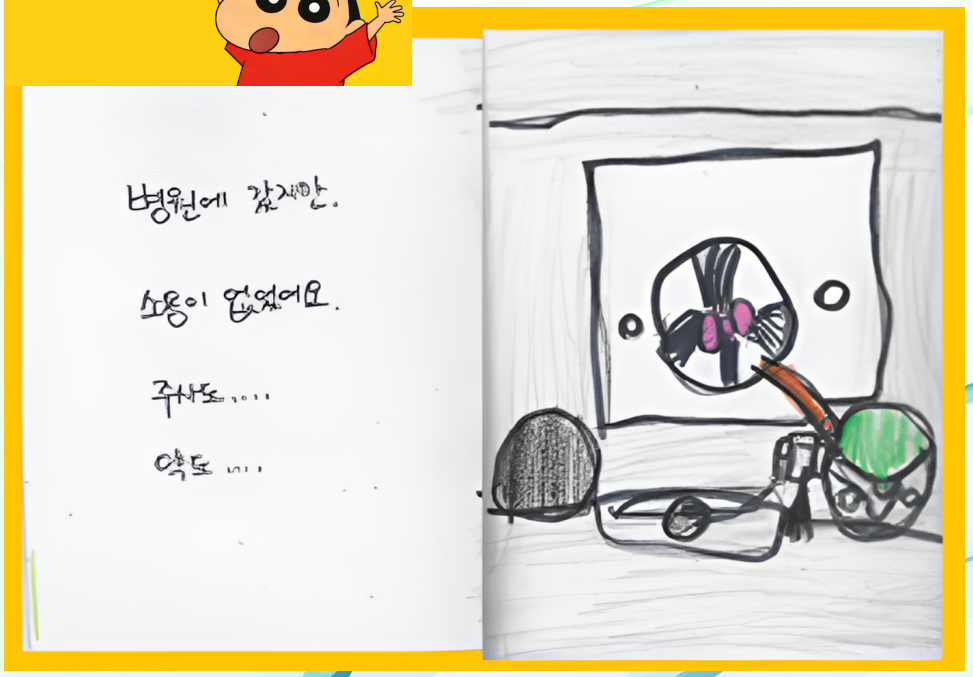
조찬희 작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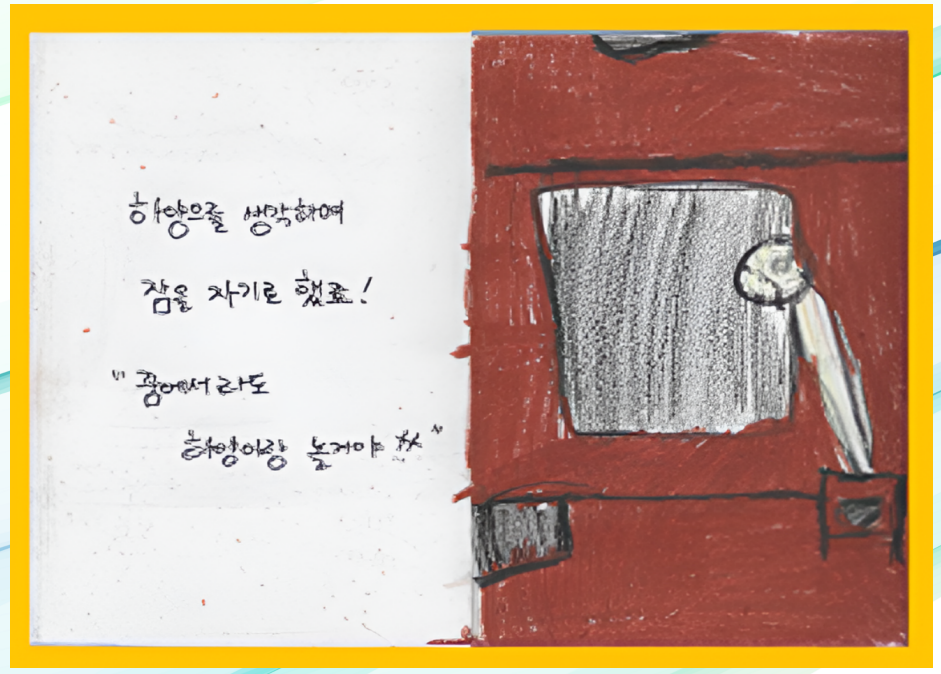
'검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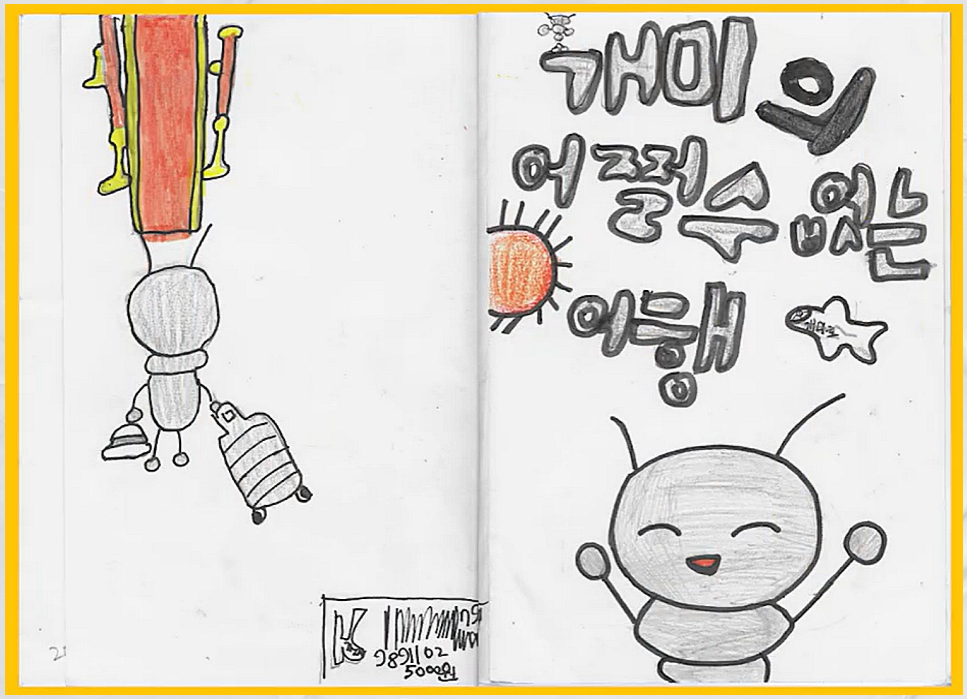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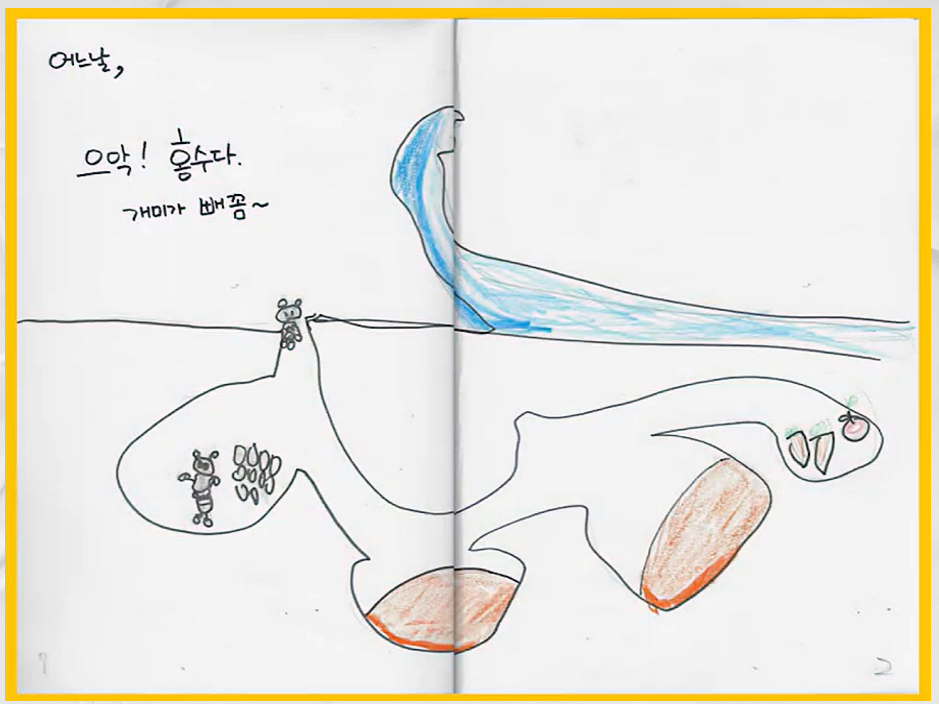

아빠는 검정이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놀이터로 갔어요
하양이자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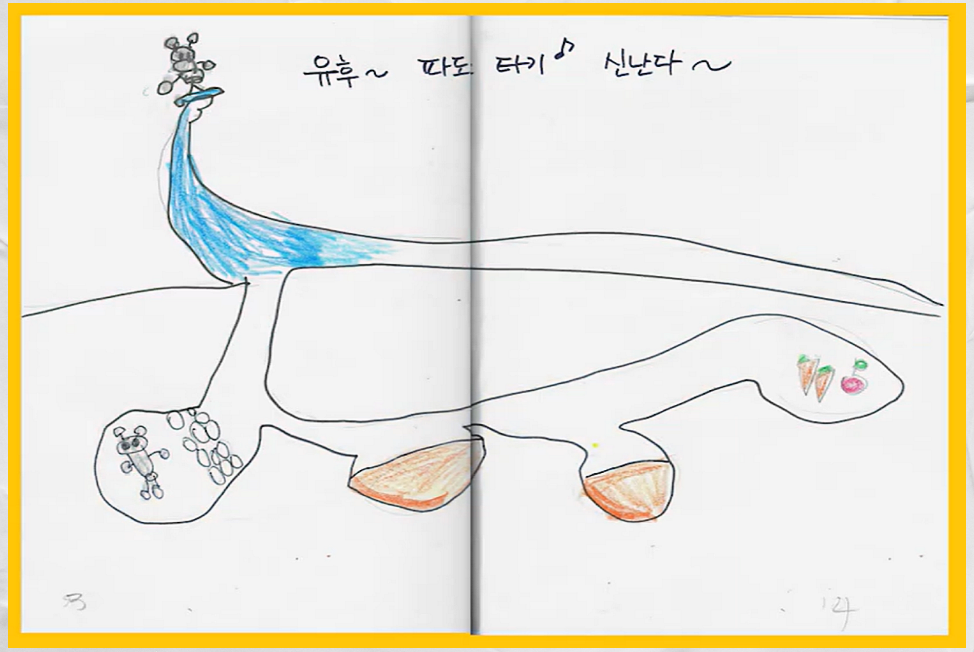

하양이와
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병이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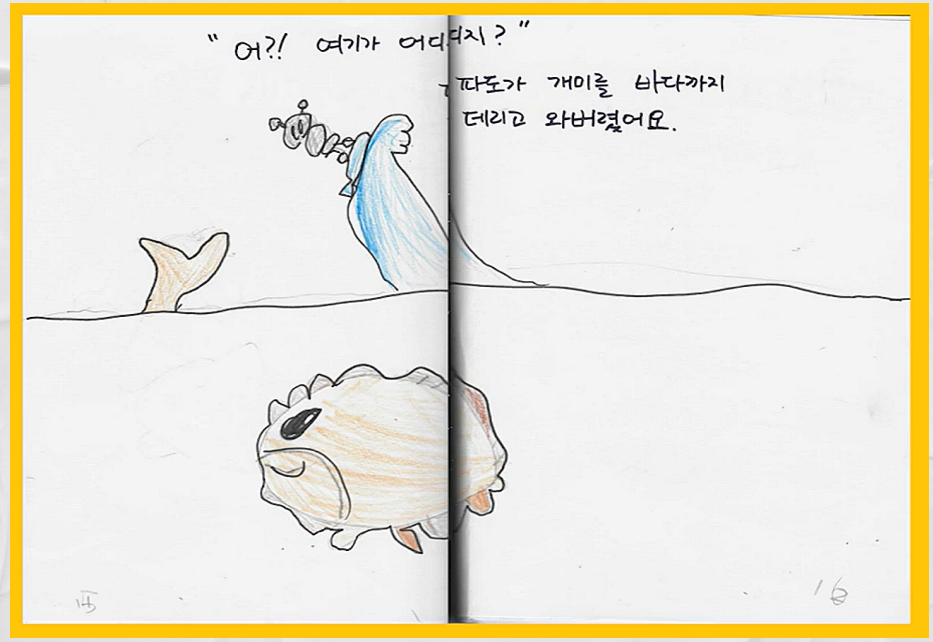

병원에 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주사도....
약도....


하양으를 생각하며
잠을 자기로 했죠!
"꿈에서라도
하양이랑 놀거야 ☆☆"


개미의
어쩔수 없는
어둠
21


어느날,
으악! 홍수다.
개미가 빼꼼~
1
2


유후~ 파도 타기♪ 신난다~
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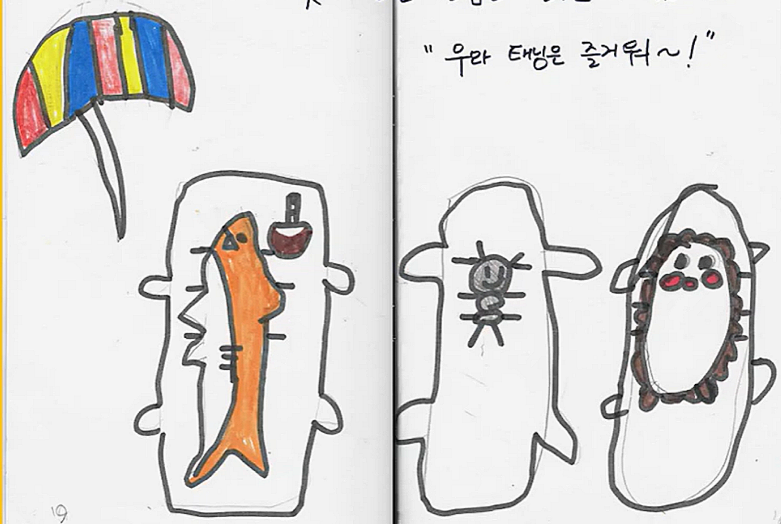

"어?! 여기가 어디지?"
파도가 개미를 바다까지
데리고 와버렸어요.
15
16

바닷속에는
상어와
잉?! 고슴도치가 살았어요.



셋의 신한 만남은 친구를 이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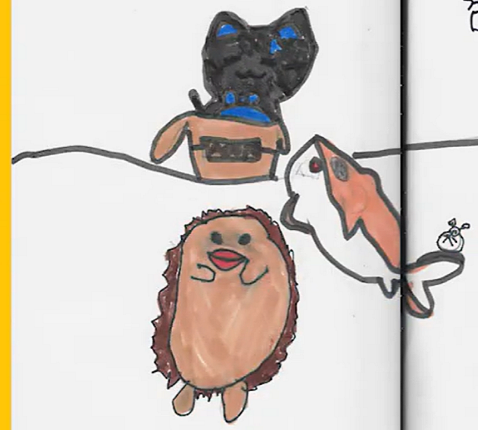
" 우라 태빙은 즐거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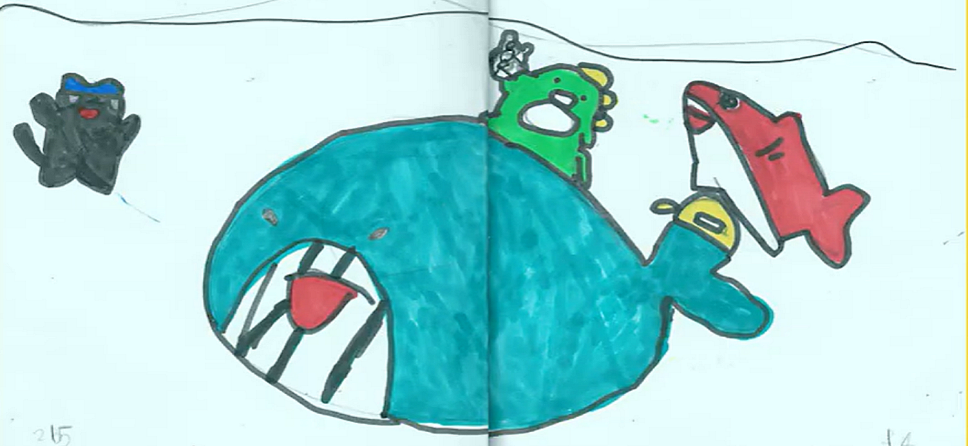
간식도 나눠먹었구요.



사이좋은 친구들의 소문을 듣고,
검은 고양이가 찾아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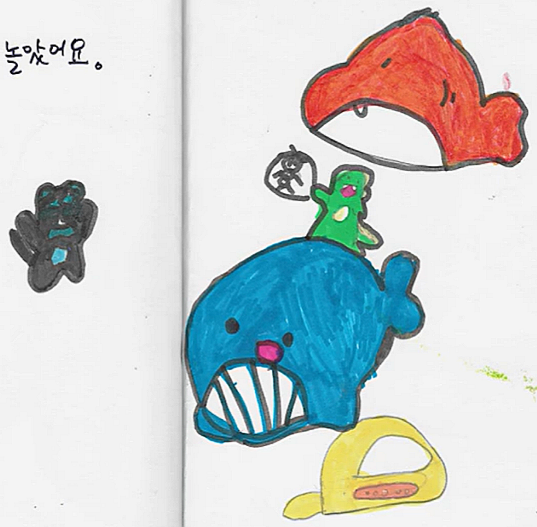


희귀한 고래와 귀여운 응용도 찾아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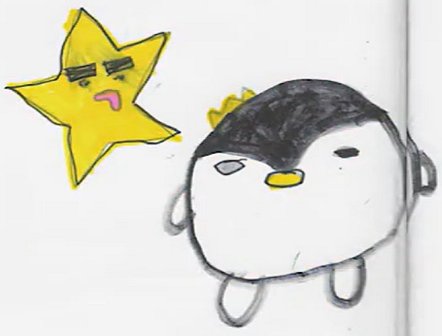


15 16

그리고,
모두 함께 놀았어요.



17 18





바다 친구들의 사이좋은 모습을 본
매일 싸우는 별과 펭귄과 토끼는
부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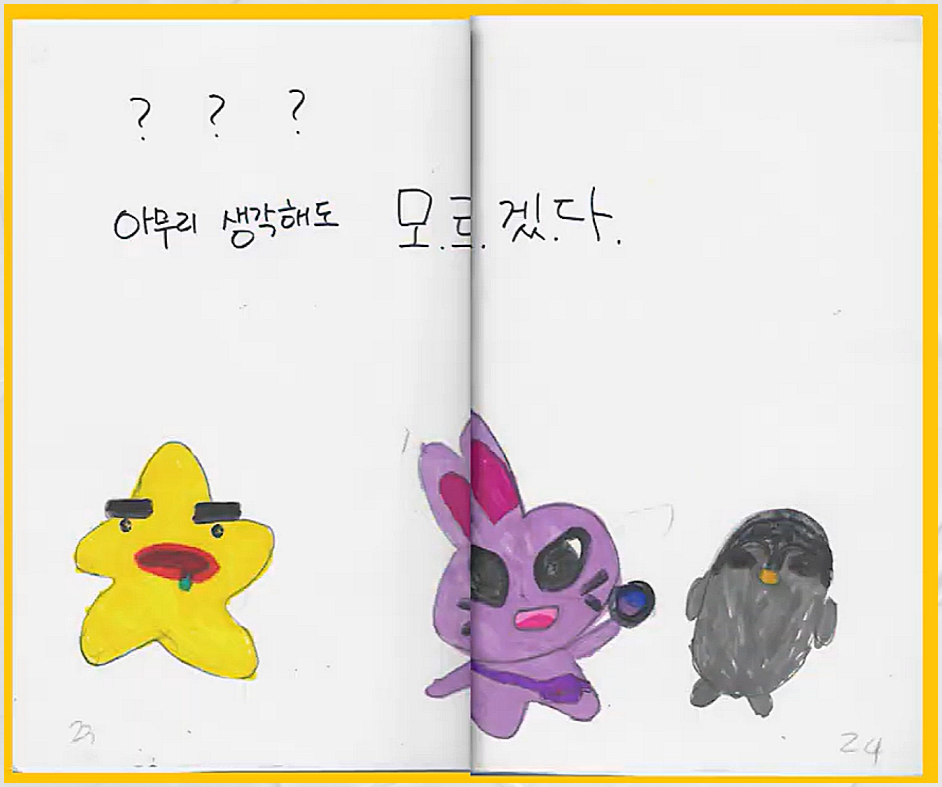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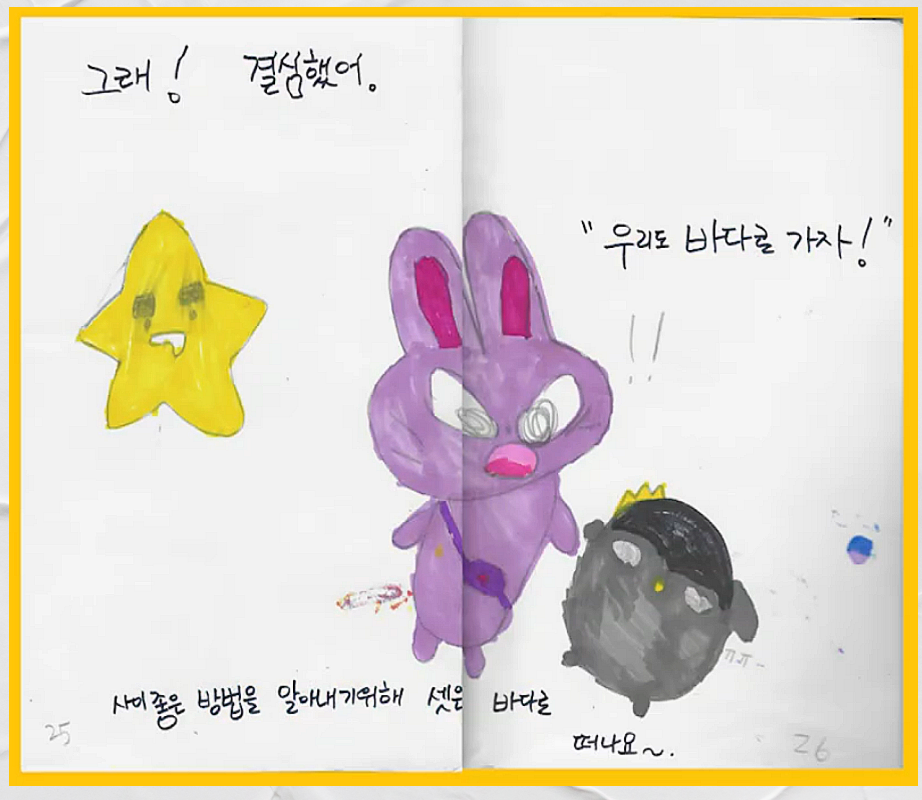


"우리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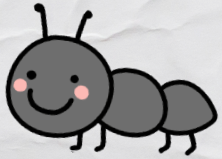
어떻게
하지?!

21 22





김한나 작가의



'개미의 어쩔 수 없는 여행'



도밍고 은언미사단!

후원안내

- 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해 당해년도 연말소득공제
- 기부영수증 홈텍스에서도 발행 가능
- 소식지, 후원감사편지 발송

농협은행 - 201016-55-004180
국민은행 - 680801-01-338237
예 금 주 - 도밍고지역아동센터

후원문의

031-871-9819

010-4510-9819

자원봉사안내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아이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프로그램 보조 | 기초학습 지도 | 멘티멘토

찾아오시는길



Facebook.com/domingochild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6-7
031-871-9819